

경쟁 넘어 이론 통섭... 불교, 한국인心性 뿌리돼



김동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4. 토착신앙과의 융화와 대중화

불교의 전래와 함께 현세와 내세의 복을 기원하는 불교신앙이 삼국에 유입되고 확산되었다. 고구려의 경우 현존하는 고분벽화에서 예불과 설법, 전륜성왕 등 불교신앙의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며, 고구려 불상의 명문에서도 미륵신앙과 아미타신앙의 성행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는 남아있는 불상, 조각, 탑과 중국 측의 기록 등을 통해 다채로운 불교신앙이 있었고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구축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불교신앙에 관한 가장 많은 사료가 전해지는 곳은 신라이며 따라서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한반도의 불교신앙을 소개하고자 한다.

명산 신앙·토텐과의 경쟁

불교 전래 후 신라에서는 기존의 무교 전통과 경쟁하는 가운데 불교의 토착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전통적 자연신격을 수용하여 이를 불교 안의 신앙 대상으로 포섭하였고 주술, 제천의식 등 무교의 역할을 불교가 대체하기도 하였다. 특히 무교의 전통적인 성스러운 공간을 점유하면서 극심한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무교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내기보다는 불교 안으로 무교 전통을 수용하고 결합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불교는 무교의 종교적 역할을 점차 대체하였는데, 무교 공간의 불교화는 역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불교의 무교화를 수반하였다. 승려가 무력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종교의 영역 내에서 불교와 무교가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교는 토착적 무교 전통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불교 도입 이전의 신라에는 명산신앙과 토텐 등의 토착신앙이 중심이었다. 불교가 도입된 초기에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였던 삼마는 무교의 사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확고한 기반을 가진 토착 신앙의 토양 위에 불교신앙의 동지를 틀어야 했다. 삼국시대 신라에는 일본의 신사와 마찬가지로 신성한 신앙적 공간인 제장이나 신당, 신궁 등이 존재하였다.

불교가 도입된 후 토착신앙과의 각축을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적 종교공간에 사찰이 들어서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천경림에는 흥륜사, 신유림에는 사천왕사가 세워졌다. 또한 후대의 운석으로 보이지만 산신인 선도성모를 모신 신사에서 금을 캐내어 불전을 수리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등 불교신앙은 토착신앙과의 융화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편 신라에서는 지배층을 위주로 한 조상숭배신앙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조상에 대한 숭배와 신격화는 고대사회의 일반적 현상이지만 특히 신라의 지배층은 신성한 선조에 대한 제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시조 및 조상신은 천신이나 자연신 관념과 결합하여 초월적 능

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고 자손에게 복과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믿어졌다. 이러한 조상으로 부터의 신성한 혈통인식은 현세와 죽음의 세계가 이어지는 연속적 내세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교가 전래된 후 조상에 대한 관념이나 숭배 의식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불교는 윤회관념을 기반을 두고 인간의 재생을 설명하는데 동아시아에 들어와서는 거듭되는 재생의 과정에서 부모와의 인연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에 신라에서는 현생 뿐 아니라 전생의 부모와 윤회하는 내가 맺고 있는 인연까지도 소중하게 여겼고 여러 생의 부모에 대한 보답은 이전과 같은 신격에 대한 숭배가 아닌 명복을 빌고 선행을 하는 추선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윤회로 맺어진 부모와 나의 존재는 인과법에 의해 상호적 공덕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

신라, 명산신앙·토텐 등이 주류

불교 전래 후 마찰... 점차 융화

승려·사찰, 무교적 의례 이어받아

왕실불교의 호국적 성격도 파생

삼국서 모두 관음·미륵신앙 대중화

불교 확산, 특유 수용력서 기인

”

신라에서는 시조묘 제사 등을 통해 천손 관념이 유지되었고 정치와 제사는 불기분의 관계였다. 불교는 전통적 무교신앙의 하늘을 능가하는 고차원적 원리로 수용되었고 왕실의 신성함을 보장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불교 전래 이전의 하늘관념은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공동체는 하늘 관념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였고 위정자는 권력의 합법성을 획득하였다.

이에 비해 불교는 인간 삶을 주재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재래의 종교적 관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대 한국인들은 종래의 하늘 관념을 버리지 않았고 인간의 윤리적 삶을 견인하는 장치로서 하늘 관념을 끝까지 견지하였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불교는 행위에 대한 책임과 행위를 통한 운명의 개척을 뜻하는 업설을 통해 전통적 하늘 관념을 불교적 맥락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이처럼 불교는 무교의 신성한 공간과 제사 등의 역할을 이어받았고 전통종교를 유연하게 포섭하면서 융화를 추구하였다.

왕실불교의 특징 '호국'

초기의 신라 불교신앙은 왕실 및 국가를 중심으로



구례 사성암 산신각의 모습. 명산신앙은 불교 전래 이전부터 있었던 한국의 토착신앙이다. 불교 도입 후 토착신앙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국 불교 안으로 융화된다. 산신각은 이 같은 융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며 호국불교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진흥왕 때에 개설된 백고화회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는 신라로 온 고구려 승려 해량이 주도하여 시행되었고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는 일종의 진호국가 법회였다. 또한 신라와 불교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한 불국토 관념도 나타났는데 신라의 수도 경주에 과거 7불이 머물던 7개의 가람 터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진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는 진흥왕 때 처음 열린 팔관회였다. 신라에서 팔관회는 재가신자가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원래 의미의 팔관제 의식과는 달리 전쟁에서 죽은 호국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의 성격을 지녔다.

망자에 대한 위령은 고대로부터 행해진 중요한 의례이자 통치 행위였다. 이는 동아시아에 존재하였던,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원령이 되어 자연재해나 역병 등을 일으킨다는 원령관념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령 행위는 국왕의 통치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일찍부터 국가 주도의 위령제가 거행되었다. 불교가 도입된 후에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 위기상황에서 불교식 위령의례가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위령제를 대체해 나갔다. 전몰영혼을 달래는 국가적 제의로서 열린 팔관회와 같이 불교는 전쟁으로 죽은 이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위령의 기능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후 불교의 위령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힘으로 망혼을 천도하고 교화하는 방식으로 후대까지 이어졌다.

한편 불교가 점차 대중에 보급되면서 국가 중심의 신앙과 의례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불교신앙도 확산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관음신앙이 유행하여 현실적 바람과 고통의 구제를 관음보살에게 기원하였고

그에 대한 큰 수요를 반영하여 수많은 관음보살상이 조성되었다. 관음보살은 대자대비를 서원하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나 현신으로 나타나는 보살이다. 관음신앙은 부여 군수리 사지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존재에서 6세기 후반 무렵에는 백제에서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6세기 초에 백제 승려 발정이가 중국 월주 지방에 가서 관음도량을 참배하였다는 기록도 전한다.

대중화의 시작 '관음·미륵신앙'

신라의 경우에도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많은 관음신앙의 사례들이 전한다. 590년에 태어난 자장의 경우도 부모가 관음상 1000구를 조성하고 득남을 기원하여 세상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 유명한 조신설화는 조신이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명주 태수의 딸과 결혼하게 해 달라고 빌어서 소원을 이루었지만 자식을 낳고 40년 이상을 살면서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헤어졌다는 스토리이다. 조신은 인생의 부질없음과 고통을 경험하고 꿈에서 깨어났고 이미 늙은 몸이 되어 세간사에 더 이상의 뜻을 잃고 인생무상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이는 삶은 욕심을 버리고 아무리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의 일장춘몽일 뿐이라는 교훈을 관음보살의 영험함에 의지해 얻은 일화로서 이를 통해 불교의 무상 개념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음신앙과 마찬가지로 미륵신앙도 삼국 모두에서 성행하였다.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도솔천으로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미륵 상생신앙, 그리고 미래불인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와 교화를 펼치고 일종의 유토피아인 융화세계를 이루기를 바라는 미륵 하생신앙으로 나뉜다. 이중 미륵 상생신앙은 고구려에서 매우 성행하였는데 당시 중국의 북위에서 도솔

천 왕생신앙이 유행한 점, 그리고 하늘의 자손인 천손임을 자부한 고구려 지배층이 사후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졌던 점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미륵 하생신앙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백제와 신라에서 성행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몇몇 국왕들은 전륜성왕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전륜성왕은 정법에 의해 세상을 평화적으로 다스려서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는 현실에서의 토대를 닦는 이로 알려져 있다. 아들 이름을 전륜성왕과 관련 있는 동륜, 사륜으로 짓고 새로 정복한 영토에 순수비를 세우면서 자신이 아소가 왕과 같은 전륜성왕임을 선언한 진흥왕은 유명한 화랑 조직을 결성하였다. 화랑은 전륜성왕과 마찬가지로 미륵불의 융화세계 건설을 위한 현실에서의 실천을 담당하였고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경쟁과 동시에 융화·확산

한편 <삼국유사>를 보면 진흥왕의 아들이자 사륜, 또는 쇠륜(철륜)으로 불린 진지왕의 재위 시에 미륵 하생신앙과 관련된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백제와 신라에서 만들어진 반가사유상은 당시 사회의 이상형을 반영하여 미륵보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주에 현존하는 8미터 높이의 단석산 미륵 삼존 마애불이나 백제 무왕이 전륜성왕을 추구하면서 미륵불이 하생할 때 세 차례 설법을 할 수 있도록 3급단 3탑의 특이한 가람배치로 만든 미륵사의 존재는 신라와 백제에서 미륵 하생신앙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

신라에서는 관음신앙, 미륵신앙과 아울러 6세기 초 원광에 의해 점찰법회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점찰법회는 나무로 된 간자를 골라 전성의 업보를 점친 후 그 죄를 참회하고 선행을 닦는 방식이었다. 이는 토착신앙에 익숙한 신라의 일반민들에게 불교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방안이었다. 점찰신앙은 이후 널리 확산되어 통일 직후 경주의 흥륜사에서 점찰법회가 열린 사실이 있으며 8세기 중반 경덕왕 때 활동한 진표의 점찰법회가 특히 유명하다. 한편 신라에는 삼국통일기인 7세기 중반 무렵에 아미타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회구하는 아미타신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가장 대중적인 불교신앙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

불교는 전래 후 토착적인 무교신앙과 경쟁하면서 융화와 확산의 길을 걸었다. 한편으로는 무교의 영역을 점유하고 대체하였고 한편으로는 무교를 적극적으로 포섭한 나머지 불교 내에서 일종의 주술화, 무교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불교의 원래 가치나 지향과 맞지 않는 면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여러 지역에서 보여준 불교의 수용력과 토착적 융합의 힘은 신라를 비롯한 삼국 모두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삼국시대 사람들이 불교신앙에 순식간에 심취하고 열광하게 된 것은 바로 불교가 가진 포용력과 대중성에 이유가 있었다. 불교는 전래 후 처음에는 강고한 무교의 벽에 부딪혔지만 결국 융합을 이루어내었고 이후 한국인의 관념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합적 신앙이자 종교로서 기능하였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향초 세트 · 밀납향초 세트

밀납향초 및 양쪽향초는 그늘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향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구성 : 6개 ·가격 : 30,000원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성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난니다.
·구성 : 6개 ·가격 : 30,000원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